

200자 안내

民主主義理論序說

로버트A. 달 지음 / 김용호 옮김

1956년에 출간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탐독되고 있는 정치학의 고전. 메디슨 및 인민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논리적 비판과 함께 저자 자신의 '다두제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최초로 도입한 개념인 정치적 선호의 강도문제에 대한 해설과 이를 근거로 하여 미국식 혼합형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아울러 제기하고 있다.

법문사 / A5신 / 182면 / 3800원

中國古代易學史

高懷民 지음 / 송실대동양철학연구소 옮김

현재 국립대만대학 및 문화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중국 역학계의 거봉인 저자의 「先秦易學史」를 번역한 책. 易學의 본질과 그 발전과정을 사상사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字句에 집착하여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던 기존 易學의 연구태도에서 벗어나 역사의 변천과정 속에서 그 사상적 연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송실대학교출판부 / A5신 / 390면 / 8500원

讀氣學說

김용욱 지음

'최한기의 삶과 생각'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조선시대의 사상이 해강 최한기가 1857년에 완성한 「氣學」이라는 책에 대한 저자의 독서보고서이다.

새로운 자료의 연구를 통해 저자는 최한기의 삶을 조명하는 동시에 그가 氣의 생물학적 모델로서 우주와 인간과 사회를 통합하려고 했던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통나무 / A5신 / 174면 / 2500원

지리산 도인을 찾아서

金日河 지음

지리산에는 천지개벽이 와도 피해가 없다는 명지가 있다. 청학동이라 일컬어지는 이곳에 기거하고 있는 신통과 지혜가 출중한 홍익대사를 한 수행자가 찾아가 문답을 통해 받은 가르

38 출판저널

침을 모았다. 행복, 자유, 평등 등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부터 '성·명·정'의 원리, 단전호흡, 氣, 밀교, 천부경, 반야바라밀 다심경 등에 대한 원리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진영사 / A5신 / 306면 / 4500원

겨울새 물살털기

주장환 지음

스포츠서울 기자로 재직중인 작가의 첫 창작집. 「역사병동」, 「단절」, 「암흑으로의 추락」, 「물살털기」 등 12편이 수록되어 있다. 문학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는 작가는 다양한 소재를 빌어 결코 거창하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섬세한 심리묘사, 추리적 사건 전개와 극적처리 등의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동인기획 / A5신 / 304면 / 3800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대천덕 신부 지음

1957년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회 미가엘 신학원을 개건립했으며, 1965년 현재의 강원도 하사마리 마을에 믿음공동체 '예수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저자의 편지글 모음. 저자에게 보내온 여러사람들의 신앙적 질문들의 요지와 그에 답한 저자의 편지내용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현실상황과 신앙, 성경해석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언급돼 있어 참신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국민일보사 / A5신 / 266면 / 3500원

소유와 분배

록 존슨 지음 / 최태영 옮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성경적 대안'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소유와 분배의 문제를 인식,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분배와 자선의 문제, 혁명과 그리스도적 공동체 등 기존의 가치와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모색도 아우르고 있다.

대장간 / A5신 / 242면 / 3500원

참은 방귀는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이호광 지음

'치사하게 살아 남은 죄를 탕감'하기 위해 참았던 방귀를 꾸덕 툴러 내놓는 저자의 세대풍자글 모음. 시대적 비극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사, 꼴불견 세대, 부부생활의 에피소드와 문제점, 시대가 남긴 유행어와 풍속도에 대한 풍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풍자는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비리에 대해서는 감시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문학출판사 / A5신 / 304면 / 3800원

마음의 병 상담실

일본전국정신장애자기족연합회 엮음 / 김선심 옮김

만성적인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재활을 위해서는 가족과 치료팀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 책은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던지는 각종 질문들에 대한 절실한 해답이 들어 있다. 가족의 마음가짐, 병에 대한 이해, 약물요법에 대한 적응, 사랑과 결혼, 접근방법 및 정신위생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실려 있다.

예전 / A5신 / 222면 / 3000원

친애하는 셸리리맨 여러분

이호광 지음

시인이자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익살과 웃음으로 엮은 셸리리맨의 직장생활 풍자극. 「셸리리맨 구상털기」, 「기가 막혀 코가 막혀」, 「나무아미타불 아멘」 등 3개의 큰 제목 속에 작은 이야기 30여편을 모았다. 직장생활을 하는 셸리리맨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고 느꼈음직한 일상사들을 작가 특유의 유머와 풍자로 그려 웃음과 동시에 감동을 안겨준다.

우리시대사 / A5신 / 238면 / 3300원

大韓民國 建國의 秘話

로버트T 올리버 지음 / 박일영 옮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이자 정치고문이었다던 저자가 1942년 위싱턴에서의 첫만남 이후로부터 1965년까지 곁에서 지켜본 이승만 대통령의 숨은 이야기들을 기술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둘러싼 한·미관계의 진상을 밝히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생활과 한국현대사 초창기에 그가 끼친 영향 등을 밝히고 있다.

계명사 / A5신 / 608면 / 12000원

현대의교론

송영우 지음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체제에서의 국가의 여러행위들의 외교적 의미를 설명한 책.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의 행위로서의 외교의 의미를 국제정치의 환경과 체제의 틀속에서 파악하고 외교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외교의 이론을, 2부에서는 실재를 다루고 있다.

평민사 / A5신 / 328면 / 5500원

생존의 소묘

이창후 지음

현재 서울대 철학부에 재학중인 저자가

기존의 정치학 관련 이론들이 정치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일관된 논리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식을 토대로 보편성, 필연성, 상호관련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보편이론을 구성하고자 쓴 책. 정치현상의 주체로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한국철학적 입장에서 고찰하고 숫자표기를 통한 그물식 논리구성을 통해 논리구조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했다.

희성출판사 / A5신 / 304면 / 4000원

과학에세이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 권국성 옮김

정열적인 과학저술가인 저자의 「The Tyrannosaurus Prescripton Aad 100 Other Essays」 중 62편을 뽑아 수록했다. 호성, 원자핵, 공룡이야기, 과학자들의 삶과 생활, 공상적 이야기, 그리고 인류의 문화를 파헤친 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길지도 길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게 써어져 부담없이 아무데서나 펼쳐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언어문화사 / A5신 / 340면 / 3800원

THE GRETEST OLYMPICS

김운용 지음

IOC 위원인 저자의 88년 서울 올림픽 영문판 회고록. 단순한 사실 회고를 뛰어넘어 스포츠외교의 관점에서 서울 올림픽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 특색. 바덴바덴에서의 올림픽 유치 순간부터 준비과정, TV 방영권 계약, 소련 등 동구권 유치작전, 남북 스포츠 회담, 각종 문화행사, 물자·금융조달 등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사영어사 / A5신 / 304면 / 7000원

코주부時事漫畫集

김용환 지음

'코주부'로 잘 알려진 우리 시사만화계의 원로인 저자가 1983년 7월 6일부터 1989년 9월 27일까지 6년 동안 발표한 작품을 망라하여 만든 작품집. 몇십매의 글로서도 한권의 책으로도 설명해내기 힘든 사건이나 세태의 특징을 간명하고 재치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사만화의 특징. 국내외의 중요한 이슈들을 포착한 만화와 함께 상세한 해설을 수록, 독자로 하여금 당시의 기억을 환기시키게 한다.

민문庫 / A5신 / 346면 / 8000원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창간호)

[특집 I] 형사정책연구의 기본방향 ▲우리사회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의 기본연구-사회학의 관점 ▲형사사법정책의 연구과제-경찰행정학의 관점 ▲범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기본방향 ▲정

신질환과 범죄
 [특집 II] 민생치안의 실태와 대책-제1회
 형사정책 세미나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성폭력
 의 실태에 관한 연구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강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번역] 1980년대 서독의 범죄학(Gunter
 Kaiser /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5신 / 378면 / 5000원

계간지

세계의문학(90년 가을)

[소설]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이석호)
 ▲안개의 像(채희운) ▲滿船歌(엄창석)
 [시] 박두진 / 설창수 / 오세영 / 고정희 / 황지
 우 / 서정학 / 윤계림 / 김중식 / 이진명 / 김재
 석 / 김요일

[논문] ▲1930년대 후기 소설논의와 실제에
 관한 연구(송하춘) ▲한 일본적 소설가의
 가장 영구적인 소설(정덕애)

[번역]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소련문학(미하
 일 엡슈타인)

[서평] ▲최승호의 「세속도시의 즐거움」과
 하재봉의 「비디오 / 천국」(김수복) ▲남진우
 의 「깊은 곳에 그물을」과 고진하의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전정구) ▲신경림의 「길」
 과 송기원의 「마음속 붉은 꽃잎」(민병기)
 ▲김영현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한기)
 ▲김현의 「시칠리아의 암소」와 윤평중의 「푸
 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홍광엽) ▲최대권의
 「통일의 법적 문제」(홍성방)

민음사 / A5신 / 338면 / 4500원

문학과사회(90년 가을)

[제2회 이산문학상] 신경림 / 최승호 / 이청준
 [시] 김광규 / 정호승 / 황지우 / 고진하 / 정화
 진 / 차창룡 / 노용희

[소설] ▲불의 얼굴(임철우) ▲얼굴(이순원)
 [논문] ▲역사주의의 한 양상(박철화) ▲무인
 청들의 삶(반경환) ▲편찬사를 통해서 본
 「독일이데올로기」(정문길) ▲하나됨의 의미
 (이좌용) ▲놀이, 억압과 해방의 두 얼굴(이창
 기)

[서평] ▲리얼리즘연극과 서사극(정지창)
 ▲방에서 광장까지(서정기) ▲문학의 실천성
 과 비평적 균형감각(박해경)

[자료] 문학과사회 1~10호 색인
 문학과지성사 / A5신 / 416면 / 4500원

창작과비평(90년 가을)

[좌담] 새로운 년대의 문학을 위하여(신경
 림 · 이시영 · 김영현 · 정남영)

[논문] ▲사회주의 리얼리즘론과 앵겔스의

발자크론(백낙청) ▲신경림, 왜 널리 오래
 읽히나(한만수)

▲1894년 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과 역사소설
 (이영호) ▲인화의 소설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상경) ▲80년대 연희예술운동의 전개
 (임진택)

[연속기획] 한국사회계급론의 쟁점 ▲지식인
 과 교사의 계급적 성격에 대하여(유팔무) ▲한
 국사회 계층구조와 지역적 특질(瀟澤秀樹)
 [문화시평] ▲「시네마천국」, 「남부군」과 「장
 군의 아들」(안정숙)

[시] 최형 / 이가림 / 김광규 / 광재구 / 고희렬
 [소설] ▲鐵의 혀(이대환) ▲먹이사슬(원명
 희)

[희곡]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안중관)
 [서평] 민영 / 황광수 / 조애리 / 도중환
 창작과비평사 / A5신 / 448면 / 4500원

민족지평(제1호)

[특집] 한국사회의 계급과 사회참여
 ▲노동자계급의 사회의식과 정치적 진출(허상
 수) ▲농민계급의 실상과 전국적 농민운동의
 성장(장상환) ▲독점재벌의 성장과 정치지배
 력의 강화(전병유) ▲중간계급의 계급적 성격
 과 정치적 성향(정관용)

[집중분석] 한국사회 지배체제의 형성과 재편
 과정

▲자본축적의 위기와 축적구조의 재편(정건
 화) ▲정치권력의 위기와 정치체제의 개편
 (정기영)

[기획논단] ▲한반도 통일문제의 현황과 민주
 변혁(정해구) ▲민족민주운동과 민주대연합
 (정혁기) ▲미국과 EC의 농산물 무역분쟁과
 우루과이라운드(황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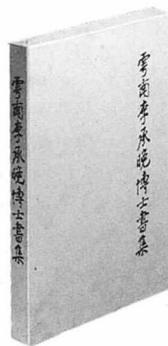
[특별기고] 최근 소련역사의 교훈(페체네프)
 민족지평 / A5신 / 314면 / 4000원



기념書集

雲南李承晚博士書集

서집간행위원회 엮음



독립운동가이자 초대대통령을 역임한
 雲南 이승만박사의 書集이 광복 45주년을
 기념하여 간행되었다.

1896년 모친상을 당했을 때의 심정을 그

당시 이박사가 썼던 贈儀錄 빈 곳에 한시로
 적은 서체를 비롯, 1905년 민영환에게 보낸
 순한글의 편지초고, 건국이후 대통령으로서
 휘사한 각양의 친필 등을 한데 모았다.

“書는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는 이박사님
 이 특정한 書風에 구애됨이 없이 대자연
 그대로의 분방한 의기와 탁월한 필치로 독자
 의 경지를 창조한 書의 세계를 본다. 참으로
 그것은 오랜 세월이 걸친 민족의 수난기를
 萬難을 배제하여 인내와 투쟁으로 일관하신
 이 어른의 고매한 인품이 아니고는 도달할
 수 없는 독보적 경지라고 할 것”이라는 게
 洪滄變씨(헌정회 회장)의 評.

한문친필에 대한 우리말 해석과 함께 독립
 운동가와 대통령으로서 이박사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춧불 / 규의 / 278면 / 5000원

사전

韓國方言辭典

崔鶴根 지음



각 방언의 어사를 예시하고 그 발음·어
 의,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지명 등을 상세히
 밝힌 방언사전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8년 간행되었던 것을 개정 증보한

이 사전은 표준어를 천문·지리·時候·방
 위·친족·인사·인체·가옥·음식·식
 기·질병·기구·복식·金石·花果·곡
 류·초목·飛禽·獸類·어패류·곤충류·
 도량형·부사·형용사·동사 등 25개의
 주제별 항목으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방언
 변화형을 사전식으로 신고 있는데, 특히 현실
 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지역의 방언을
 최대한 수록하고자 애쓴 점이 돋보인다.

부록으로 권말에 이승녕 박사의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와 저자의 「남북방언
 어군의 等語線」 등이 실려 있어 방언학 연구
 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明文堂 / 규의 / 2286면 / 35000원

화제의 책

애니메이션 영화사

黃先吉 지음



일반적으로 ‘제9의 예술’이라 불려지는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는 책이 나왔다.

지난 87년 KBS, MBC 두 방송사가 TV

애니메이션을 국내 처음으로 제작, 방영함으
 로써 본격적인 애니메이션시대가 열렸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부재했다고 지적하
 는 저자는, 이 책에서 애니메이션의 기원과
 각국의 애니메이션 역사를 살피면서 국내
 애니메이션계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MBC 영화제작위원인 저자 자신이
 직접 TV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가했던 경험
 을 토대로 씌어진 이 책은 특히 애니메이션
 세계의 무궁무진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권말에 실린 「애니메이션 연대표」와 「세계
 주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콘테스트」는
 애니메이션 관련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전문
 가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백수사 / B5신 / 266면 / 12000원